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노옹이 「현화가」를 지은 까닭은?

1. 수로부인은 누구인가

시인들은 연애 감정을 가질 때 아름다운 시를 빚어낼 수 있다고 한다. 김소월의 시나 한용운의 시들은 '이성' 혹은 '조국' 또는 '님' 등에 대한 연애감정을 원용하여 형상화해 낸 절창들이다. 연애는 이성 혹은 동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감정이다. 동시에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이 끈은 사람뿐만 식물과 동물과 광물 등의 사물 사이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꽃'은 어떠한 성취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이성 혹은 동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신라의 '원화'(源花) 역시 아름다운 미소녀들로 구성된 '꽃'들이었고, '화랑'(花郎) 역시 아름다운 미소녀들로 구성된 '꽃남'이었다. 인류의 역사는 남녀의 만남 혹은 음양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꽃과 나비 혹은 벌과의 관계처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의 연애 감정 역시 매우 아름다운 것이며 건강한 것이다.

『삼국유사』를 들여다보면 남녀의 인연은 정치와 종교 및 역사와 사상 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환웅과 웅녀, 해모수와 유휘, 진지왕과 도화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 무열왕 김춘추와 문희 및 보희, 김유신과 천관녀, 원효와 요석, 의상과 선묘, 조신과 (김춘공의 딸) 김랑 등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수로부인' 조목은 암소를 끄는 노인[牽牛老翁]과 절세 미인[容姿絶代] 수로부인(水路夫人)이 철쭉꽃[躑躅花]과 노래[獻花歌]로 매개되고 있다. 그런데 '수로'와 '수로부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성은 분분하다. 일연(一然)은 "수로부인은 용모가 세상에서 견줄 이가 없었으므로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귀신이나 영물에게 불뉘러 갔다"고 하였다. 수로부인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거듭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깊은 산[深山]이나 큰 못[大澤]을 지날 때마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 의미를 밝히는 것이 수로부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로'는 "수신(水神)이 살거나 나타나는 장소"(미시나, 三品)로 보거나, "신령스런 존재로 '소도'(蘇塗)의 음이 변한 '사로'(斯盧)와 동일하며 '수로'(首露)의 음차로 추정"(장진호)하기도 한다. 또 '수신(水神)'을 맞이하는 의례에 등장하는 신령(神靈), "범어 살야(salya)에서 사로(saro), 다시 수로(suro)로 변형된 것이며 '태양'을 뜻하는 범어"(김재봉)로 본 경우도 있다. '수로부인' 역시 "기우제를 진행하는 무(巫)"(이해화, 김문태), "풍어제를 진행하는 무(巫)"(최인표), "무병(巫病)의 단계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장진호), "서술(경주)의 아름다운 여인"(윤영옥, 박노준, 황폐강) 등으로 보고 있다.

'수로'에 대해 '피리를 잘 불어 밝은 달을 멈추게' 했던 '월명'(月明)사, '백성의 안녕을 직언한 충언의 담론을 제기'한 '충담'(忠談)사, '천기나 천체의 유행을 조절하고 용화'한 '용천'(融天)사처럼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연관시켜 푸는 이들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수로'(水路)부인은 "물이 라는 생명의 길을 여는" 여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길을 연다'는 것은 기우제나 풍어제를 진행하는 무(巫)이거나 무병(巫病)단계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연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영매(靈媒)의 권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수로부인' 조목에 나타난 그녀는 절벽 위의 꽃을 딸 수 있는 능력도 보이지 않고, 바다를 맞서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다. 소를 끄는 노인이 건네주는 철쭉꽃을 받은 여인이자 바다를 나가게 들어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인일 뿐이다. 바다에서 돌아와 남편인 순정공의 물음에 답하는 내용도 그저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로부인은 강릉태수로 부인하는 순정공의 아름다운 부인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2. 견우노옹과 해룡의 정체

성덕왕에 의해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는 순정공(純貞公)은 누구였을까. 그가 성덕왕

동해용은 지방권력 상징

철쭉바친 노인은 문수대성

의 아들인 경덕왕비 삼모(三毛)부인의 부친 이찬 김순정(金順貞)이라는 설도 있으나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신라인들은 같은 음을 가진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이 조목의 맥락에서 볼 때 순정공은 이름 그대로 순수함[純]과 정숙함[貞]을 지닌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바다용에게 아내를 빼앗기자 잃어지고 자빠지며 발을 구르는 평범한 지아비로 보일 뿐이다. 때문에 순정공은 남성적인 매력과 열정을 찾아볼 수 없는 순진하고 천진스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수로부인에게 버림받은 철쭉꽃을 꺾어다 준 암소를 끌고 가던 노인은 누구인가. 일연은 "그 노옹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其翁不知何許人也]고 하였다.

이와 달리 일부 학자들은 노옹을 "그 지역에서 기우제를 주관하던 사제"(김문태), "신병(神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천신(天神)의 대리자"(장진호, 허영순), "선승(禪僧), 보살의 화신"(김종우, 김광준, 최철), "단순한 노인"(윤영옥, 박노준, 황폐강)이라고 하였다. 또 '암소'에 대해서는 '불교의 심우도(壽牛圖)에서 우리들의 자성 즉 본래의

지방권력과 신라왕실의 갈등해소 위해



삼척에 위치한 수로부인 공원. 수로부인 현화가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다.

진면목'(김승찬, 최철, 김종우), "기우제에서 여성 즉 음(陰)을 상징"(김문태), "노인의 부인"(최성호), "단순한 소"(윤영옥, 박노준, 황폐강, 장진호)로 보았다. '점심'(晝膳)은 "제례의식 때 신에게 바치는 제물 또는 임금의 식사"(김승찬, 김광준), "단순한 점심"(이병도)으로 보았다. '돌로 된 산의 높이가 천길'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교통로 또는 신의 서식처인 신성지역"(김문태, 장수근, 김승찬), "천상의 신이 강림하는 장소"(장진호), "실제의 모습을 표현"(윤영옥, 박노준, 황폐강)한 것으로 보았다. '철쭉꽃'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우제에서 양(陽)의 정령(精靈)"(김문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영력(靈力)의 매개물", "사람의 매개물"(윤영옥, 박노준, 황폐강, 최리자)로 보는 이들이 있다. '꽃을 꺾어 바침'에 대해서는 "기우제에서 양의 정령인 철쭉꽃이 음의 정령인 수로부인에게 꽃혀짐 즉 양과 음의 교합을 통한 음양의 조화"(최진원, 김문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천신(天神)에게 감응"(장진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바다의 용'은 "무서운 정체불명의 존재인 순"(김문태), "수신(水神) 혹은 용신(龍神)"(장진호)으로, "용이 부인을 낚아채 바다속으로 들어가 버림"에 대해서는 "기우제를 주관했던 수로부인은 가뭄이 계속되자 균중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졌고 비가 올 때까지 물에 잠겨있는 것을 상징"(김문태), "수신(水神)을 체험하는 신병(神病)의 과정(장진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수로부인을 사면 혹은 사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수로부인' 조목에서 수로부인을 내놓으라는 '해가'는 수로왕을 맞이하는 '구지가'의 주가(呪歌) 형식과 패턴이 닮아 있다.

이 '해가'가 만들어진 계기는 또 다른 한 노인에 의해서이다. 이 노인은 또 누구일까. 수로부인이 바다용에 납치되자 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옛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衆口鑠金]고 했는데 지금 바다 속의 미물이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지역 내의 백성들이 나아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以杖打岸]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순정공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용이 바다로부터 부인을 모시고 나와 공에게 인도했다. 여기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에 대해서는 "기우제에서 영험함을 지닌 주술도 구인 막대기로 수신(水神)을 다스리는 행위"(김문태), "풍어제와 무당과정에서 무(巫)가 굿을 할 때 타악기를 쳐서 예시타시[忘我, 脫魂]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빠른 장단의 무악(巫樂)"으로 보았다. "용이 바다로부터 부인을 모시고 나와 공에게 인도했다"에 대해서는 "기우제에서 강우의 목적 달성"(김문태), "무당과정에서 노인은 천신(天神)을 믿은 큰무당으로 수신(水神)인 용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의미하며 이는 천신 우위사상을 나타낸 것"(장진호)으로 보았다. 만일 수로부인을 입무(入巫) 과정에 들어가는 무녀나 초월적 존재로 파악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현화가」의 해석

문정공의 아내인 수로부인은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許皇玉)과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구지가」와 동일한 형식인 「해가」(海歌)를 덧붙이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된다. 가야의 수로왕은 인도 북부 갠지스 강가에 있다가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로 세력권을 옮겨온 아요디아(Ayodhya,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가야는 한반도 남부를 거점으로 왜 열도와 대륙을 무대로 철과 배 그리고 쌀을 공급한 제국이었다. 가야의 개조 수로왕을 맞이하는 「구지가」는 신탁에 따라 군신(君神)을 맞이하려는 무도(舞蹈)에 수반되어

제창된 노래이자 제의(祭儀)의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구지가」와 맥락이 다른 '수로부인' 조목에 왜 이 「해가」가 실려 있을까. 정말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 내보내라/ 남의 부인 앓아간 죄 얼마나 크다 할까/ 내가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내어 구워 먹으리라." 이 「해가」는 「가락국기」에 나오는 "거북아 거북아[龜何龜何]/ 머리를 내밀어라[首其現也]/ 만일 내밀지 않으면[若不現野也]/ 구워서 먹겠다[燔灼而喫也]"는 「구지가」를 연상시키고 있다. '수로부인' 조목의 「해가」도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내어 구워 먹으리라"는 주사(呪詞) 형식의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구지가」에서 거북은 신령스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군장(君長) 자체는 아니다. 여기서 은유의 명령법에 의한 주가(呪歌)는 "거북의 머리"에 가해지는 것일 뿐 군장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불러온다는 주술심리를 통해 나타나기 힘든 거북의 머리가 출현하면 신의 출현도 가능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투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수로부인'의 「해가」에 보이는 제1구는 「구지가」의 '머리' 대신 '수로부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2구에는 '남

수로부인 납치 귀환은

불심에의한 왕실·지방 화해 표현

의 부인을 앓아간 죄 얼마나 크다 할까'로 되어 있다. 이 두 노래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수로부인이 순정공을 따라 부임하는 강릉(명주)은 서라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성덕왕 자신(孝明)이 수행했던 곳이자 형인 보천(實川)이 오대산만다라 신앙을 완성시킨 곳이다. 하지만 이곳 명주 일대(오대산 포함)는 원성왕(785-804 재위)대 이래 방계 김씨(周元)세력의 근거지였으며 신라말에는 사물산문의 무대이기도 하였다. 이곳에 신라의 관리인 문정공은 절세의 미인 아내 수로부인을 대동하고 강릉(명주)태수로 부임하다가 암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절벽에 핀 철쭉꽃을 꺾어달라는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어 노래까지 지어 바쳤다. 그런데 이 노인은 오대산 진여원에서 매일 새벽 변신하는 36종의 화불 중 34번째의 소의 화불로 변신한 문수대성이었다. 그리고 수로부인을 납치한 동해용은 백성들의 여론에 굴복하여 수로를 다시 바쳤다. 이것은 동해용으로 상징되는 강한 권력에 기반했던 지방 권력층이 불교인들의 여론에 굴복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덕왕은 왕권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일련의 개혁사업의 책임자로 순정

공을 강릉태수에 제수하였다. 그 부인과정에서 보천(實川)에 의해 완성된 화엄사상과 문수(彌勒)사상으로 집성된 오대산만다라 신앙에 입각하여 지역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이 바친 현화가 분석해 보자. "자주빛 바위가에/ 암소 잡은 손 놓게 하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라."(양주동 역) "자주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라."(김완진 역) 이 노래에서 우리는 수로부인을 한 노인이 꽃을 꺾어다 바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수의 신령 연구들처럼 기우제나 풍어제 혹은 무(巫)가 되는 과정의 무녀(巫女) 혹은 초월적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수로부인은 왜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귀신이나 영물들에게 불뉘러 갔을까. 단지 절세의 미인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순정공으로 대표되는 신라 왕실세력과 '깊은 산'과 '큰 못' 및 동해용으로 상징되는 지방권력과 갈등 해소의 메신저로 보아야 하는가. 수로부인이 '철쭉꽃 꾸민 공전음식은 인간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무당과정에서 불교의 미르(미륵)신앙과 결부되어 굴절한 설화로 수로부인이 용궁에서 겪은 내용은 『미륵하생경』의 장엄세계"(장진호), "풍어제에서 어떤들의 생계와 연계된 이상향(최인표)으로 보았다. 이러한 「해가」와 「구지가」와의 관계 속에서 「현화가」를 살펴보면 노옹의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이라는 이 단지 아름다운 여인인 수로부인에게 꽃만을 건네주는 관계로 보기에 미흡해 보인다. 오히려 순정공으로 대표되는 신라 왕실의 사상적 배경인 보천의 화엄사상과 문수(彌勒)사상의 집대성한 오대산만다라 사상과 동해용으로 상징되는 지방 권력과 갈등 해소의 메신저인 수로부인에게 오대산 문수보살의 36종 변상 중 34번째 '사자를 낚는 소' [牛產師子]형 화불로 나타나 보살행을 펼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 일 연, 『삼국유사』, 권상으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양주동, 『고기연구』(일조각, 1975).
- 김원진, 『항가해독법편 구』(서울대출판부, 1983).
- 이도훈,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 2000).
-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2005; 2007).
-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병 출가의식 지원

신병은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병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